2022.6.13

리 포 트
포커스

# 1인 가구 소비 지출 구성의 연령별 특징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 약

○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특징은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본고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할 때 연령별로 소비 지출의 구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1인 가구의 특징을 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주거비의 비중이 높고, 교육비의 비중이 낮으며, 식료품보다는 외식에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이유'가 연령별로 크게 차이나고 있어, 1인 가구를 동질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본고는 「가계동향조사」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2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의 가중치를 활용해서 1인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을 추정하고 이를 연령별로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하였음

○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 차이는 식료품과 외식비의 경우 주로 30·40대에서, 교육비는 40·50대에서, 주거비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등 연령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1인 가구의 보험료 지출 비중은 40대와 50대에서 2인 이상 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차이들은 2021년 기준 자료나 2011년 기준 자료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됨

○ '1인 가구는 모두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는 동질집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연령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1인 가구는 40·50대의 중년기에 이미 자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30대 이하 1인 가구의 보험료 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보험의 활용도를 늦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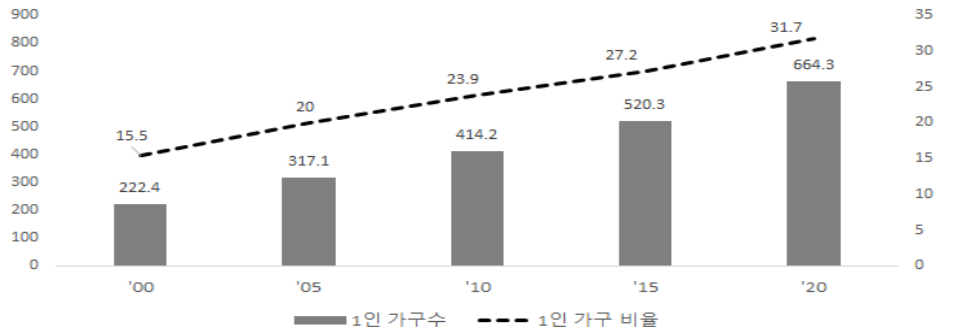
## 1. 1인 가구의 증가

○ 전통적인 가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특징은 소비자 성향의 파악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1인 가구의 수는 2000년 약 222만으로 전체 가구에서의 비중이 15.5%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600만을 크게 추월하면서 그 비중이 31.7%에 달하고 있음
- 2020년 연령별 비중의 경우 전체 1인 가구에서 20대와 30대 비중이 각각 19.1%, 16.8%로 가장 많아 40대 이하의 비중의 1/3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1〉 1인 가구 수 및 전체 가구에서의 비중

(단위: 만 가구, 비중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본고는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소비 지출에 있어서 연령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1인 가구의 특징을 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본고는 1인 가구가 일반적인 가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혼인-출산-분가 등 삶의 일반적인 흐름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일반 가구와는 달리 1인 가구는 미혼, 이혼, 사별 등 비연속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이질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사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통계자료의 경우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논의에 한계가 있음
- 본고는 1인 가구의 소비 지출을 기존 통계를 활용하여 연령별로 추정하고, 이를 2인 이상 가구[1]와 비교함으로써 1인 가구에서 나타나는 소비 활동의 연령별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1) 2인 이상 가구라고 해서 모두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적인 형태의 가구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도 있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구는 대부분 2인 이상 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는 1인 가구와 대별되는 일반적인 가구를 대표하는 통계로 2인 이상 가구를 활용하였음

## 2.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징

○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전체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소비지출에 있어서 주거비의 비중이 높고 교육비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1〉, 〈그림 2〉 참조)

-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자산과 소득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2]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종류에 있어서도 근로소득보다는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지원이나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의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1〉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자산·부채 및 소득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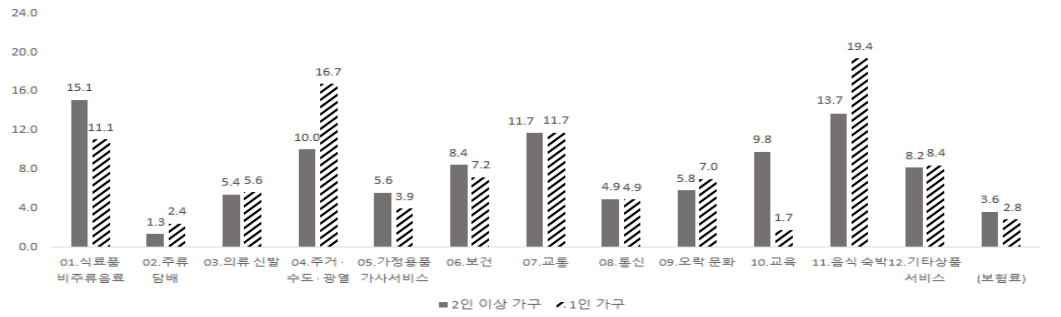
| 구분 | 자산·부채 | | | | | | | |
|---|---|---|---|---|---|---|---|---|
| | 자산 | 부채 |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 전체 가구 | 50,253 | 8,801 | 6,125 | 3,855 | 1,135 | 432 | 602 | 101 |
| | – | – | (100.0) | (62.9) | (18.5) | (7.1) | (9.8) | (1.6) |
| 1인 가구 | 20,411 | 3,174 | 2,409 | 1,270 | 380 | 160 | 445 | 153 |
| | – | – | (100.0) | (52.7) | (15.8) | (6.6) | (18.5) | (6.4) |

주: 2021년은 추정치, 2022년은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비지출의 경우 1인 가구는 자가 비중이 낮아 임차료 등의 지급에 따른 '주거비(주거·수도·광열)'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자녀 교육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교육비'의 비중이 매우 낮음
  - 반면, 1인 가구는 가사 활동을 위한 여력이 낮아 '식료품·비주류음료'보다는 외식을 포함하는 '음식·숙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비교(2021년)

(단위: 비중 %)




주: 보험료 항목은 12. 기타상품 서비스에 포함된 하부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을 제외한 비중의 합이 100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1인 가구는 가구원 수가 1인, 2인 이상 가구는 2.99명(2021년)이며, 전체 평균은 2.37명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더라도 가구원 수가 적기 때문에 생활비의 충분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음

○ 1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이유'가 연령별로 크게 차이나고 있어 1인 가구의 특징을 보다 미시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임(〈표 2〉, 〈표 3〉 참조)

- '1인 가구로 생활하게 된 이유'의 경우 젊은 연령에는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 또는 스스로 선택한 경우가 많으나, 중년에 들어서는 이혼에 의한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노년에서 사별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표 2〉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2020년)

(단위: 비중 %)

| 구분 | 혼자 살고 싶어서 |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으로 | 배우자의 사망으로 | 본인의 이혼으로 | 배우자의 학업이나 직장으로 | 기타[2] |
|---|---|---|---|---|---|---|---|
| 20세 미만 | 22.52[1] | 3.3 | 68.1 | 0.0 | 0 | 0 | 6.1 |
| 20세 이상~30세 미만 | 19.9 | 5.0 | 70.0 | 0.0 | 0.5 | 0.3 | 4.4 |
| 30세 이상~40세 미만 | 25.8 | 3.9 | 58.5 | 0.5 | 1.8 | 0.6 | 8.9 |
| 40세 이상~50세 미만 | 29.8 | 6.3 | 30.9 | 0.6 | 17.1 | 2.7 | 12.7 |
| 50세 이상~60세 미만 | 16.4 | 4.0 | 13.5 | 7.1 | 35.0 | 3.5 | 20.6 |
| 60세 이상~70세 미만 | 9.3 | 3.6 | 4.3 | 25.2 | 31.0 | 3.9 | 22.8 |
| 70세 이상 | 8.6 | 3.3 | 0.8 | 65.1 | 8.0 | 0.4 | 14.0 |

주: 1) 명암은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10%를 상회하는 경우임
2) 기타는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 부모나 자녀 사망, 자녀 이혼, 부모 이혼 등을 합한 것이나 단독으로 10%를 넘는 경우는 없었음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 '1인 가구가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은 주로 식비·주거비·의료비로 나타났는데, 식비와 주거비는 젊은 계층일수록 의료비는 고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연령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고는 연령별·소득항목별로 지출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동일 연령대의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함으로써 1인 가구의 소비활동이 갖는 특징을 논의하고자 함

〈표 3〉 1인 가구의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2020년)

(단위: 비중 %)

| 구분 | 식비 | 의류비 | 주거비 | 의료비 | 교통통신비 | 경조사비 | 교육비 | 기타 |
|---|---|---|---|---|---|---|---|---|
| 20세 미만 | 51.6 | 0.0 | 33.7 | 0.0 | 5.6 | 0.0 | 9.1 | 0.0 |
| 20세 이상~30세 미만 | 45.1 | 3.3 | 43.2 | 0.8 | 3.9 | 0.7 | 2.5 | 0.5 |
| 30세 이상~40세 미만 | 35.4 | 2.1 | 53.0 | 1.5 | 3.2 | 2.6 | 0.3 | 1.9 |
| 40세 이상~50세 미만 | 31.5 | 1.0 | 49.4 | 3.8 | 4.1 | 3.3 | 4.8 | 2.1 |
| 50세 이상~60세 미만 | 30.1 | 0.7 | 40.5 | 13.6 | 3.4 | 4.0 | 4.7 | 3.0 |
| 60세 이상~70세 미만 | 29.4 | 1.8 | 30.9 | 26.4 | 2.0 | 6.5 | 0.3 | 2.8 |
| 70세 이상 | 21.2 | 0.6 | 18.3 | 55.5 | 1.0 | 1.9 | 0.1 | 1.4 |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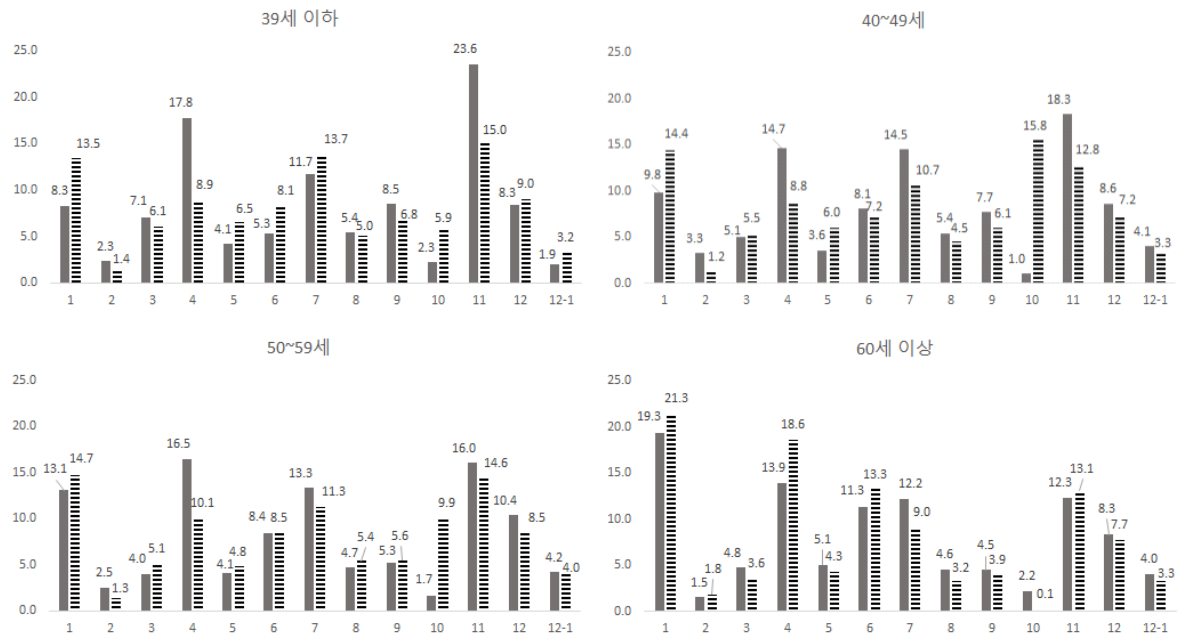
## 3. 1인 가구 소비지출의 연령별 특성

○ 본고는 「가계동향조사」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2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의 가중치를 활용해서, 1인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을 연령별로 추정하였음

-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에 대한 직접 조사[3]를 통해서 전체(1인 이상)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에 대해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자료를 작성하고 있음
- 전체(1인 이상) 가구의 자료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가중평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가구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연령별 가중치를 활용하면 1인 가구의 연령별 가중치도 파악할 수 있음
- 본고는 상기에서 도출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을 추정하였음
  - 다만, 2021년의 경우 전체(1인 이상) 가구 통계는 농림어가를 포함하고 2인 이상 가구 통계는 농림어가를 제외하는 차이가 있어, 모집단을 통일하기 위해 도시지역 근로자 가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추정하였음

〈그림 3〉 연령별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 비교(도시근로자 가구, 2021년)

(▬: 1인 가구 ▥: 2인 이상 가구)




주: 1) X축은 1.식료품·비주류음료, 2.주류·담배, 3.의류·신발, 4.주거·수도·광열, 5.가정용품·가사서비스, 6.보건, 7.교통, 8.통신, 9.오락·문화, 10.교육, 11.음식·숙박, 12.기타상품·서비스, 12-1.보험료(기타상품·서비스의 하위 항목)임
2) 좌측 막대는 1인 가구이며, 우측 막대는 2인 이상 가구임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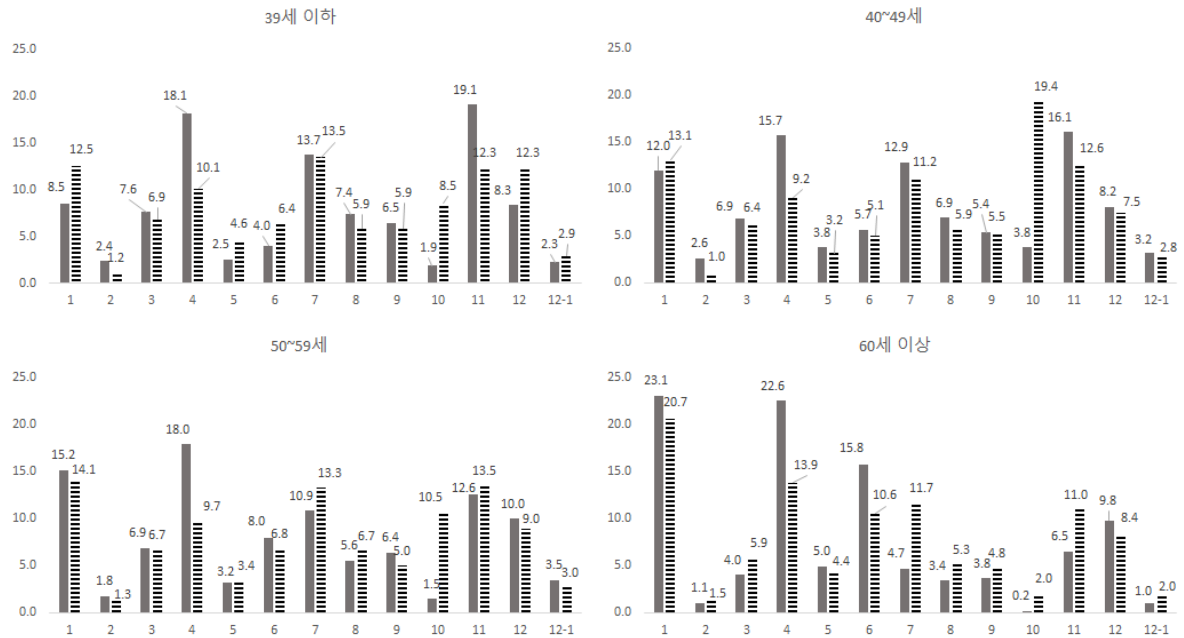
3) 농림어가를 포함하여 총 7,200가구를 대상으로 종이 및 전자가계부에 응답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함

○ 1인 가구의 소비지출 구성은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할 때 30대에는 식비와 주거비를 중심으로 40·50대에는 교육비를 중심으로 큰 차이를 보이나, 60대 이후에는 상호 매우 유사한 구성을 보임(〈그림 3〉 참조)

-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할 때 연령대마다 차이를 주도하는 소비 항목이 달라 연령별로 소비지출의 특성이 이질적인 것으로 판단됨
  - '1.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경우 비중의 차이(1인 가구 - 2인 이상 가구)가 30대 이하 -5.18%p, 40대 -4.60%p, 50대 -1.66%p, 60대 이상 1.96%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 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짐
  - '11. 음식·숙박'의 비중 차이의 경우 30대 이하 8.52%p, 40대 5.49%p, 50대 1.45%p, 60대 이상 0.73%로 나타나 '1. 식료품·비주류음료'과는 방향은 반대이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 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낮아짐
  - '10. 교육비'의 비중 차이의 경우 30대 이하 -3.46%p, 40대 -14.75%p, 50대 -8.23%p, 60대 이상 -2.07로 나타나 상호 간 차이가 40·50대에 집중되고 있음
  - '12-1. 보험료'[4]의 경우 1인 가구에서의 비중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30대에는 낮다가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60대에는 다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의 유사성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5]

〈그림 4〉 연령별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 비교(전체 가구, 2011년)

(▬: 1인 가구 ▥: 2인 이상 가구)




주 : 1) 1.식료품·비주류음료, 2.주류·담배, 3.의류·신발, 4.주거·수도·광열, 5.가정용품·가사서비스, 6.보건, 7.교통, 8.통신, 9.오락·문화, 10.교육, 11.음식·숙박, 12.기타상품·서비스, 12-1.보험(기타상품·서비스의 하위 항목)

2) 좌측 막대는 1인 가구이며, 우측 막대는 2인 이상 가구임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추정함

4) 보험료를 12-1로 표기한 이유는 〈그림 2〉와 마찬가지로 '12. 기타상품·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12-1 보험료'는 '가계의 보험료 지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신 등 보장성보험, 실손 등 건강보험, 자동차 등 운송관련 보험,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보험 등을 포함함

5)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30대 이하 0.73, 40대 0.35, 50대 0.78, 60대 이상 0.97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40대 이후에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상관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음

○ 2011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2021년 자료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소비지출과 관련한 1인 가구의 특징은 연령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그림 4〉 참조)

- 2011년 기준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의 차이는 연령별로 차이를 주도하는 소비항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2021년 기준 통계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1.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 차이(1인 가구-2인 이상 가구)는 30대 이하 -4.03%p, 40대 -1.10%p, 50대 1.11%p, 60대 이상 2.45%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 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짐
  - '11. 음식·숙박'의 비중 차이의 경우 30대 이하 6.77%p, 40대 3.45%p, 50대 -0.85%p, 60대 이상 -4.41%p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 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낮아짐
  - '10. 교육비'의 비중 차이의 경우 30대 이하 -6.62%p, 40대 -15.57%p, 50대 -8.99%p, 60대 이상 -1.81로 나타나 상호 간 차이가 40·50대에 집중되고 있음
  - '12-1. 보험료'[6]의 경우 1인 가구에서의 비중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30대에는 낮다가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60대에는 다시 낮아지는 추세가 2021년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의 유사성은 2021년 결과와 유사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7]으로 보임

## 4. 시사점

○ '1인 가구는 모두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는 동질 집단'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연령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외식에 대한 높은 의존도, 주거비의 높은 부담, 교육비의 낮은 부담 등 1인 가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식료품·비주류음료'(30대 이하, 40대), '음식·숙박'(30대 이하, 40대), '주거·수도·광열'(전 연령층), '교육비'(40, 50대) 등에서의 차이는 서로 다른 연령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따라서 1인 가구 시장에 대해 접근할 때는 본고에서 논의한 연령 외에도 다양한 특징에서 의해 이질적인 경제 행태를 보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험회사는 1인 가구의 보험료 비중이 중년(40·50대) 가구에서 2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21년과 2011년 모두에서 중년 1인 가구의 보험료의 비중이 30대 이하와 60대 높게 나타나는 것은 1인 가구가

6) 보험료를 12-1로 표기한 이유는 〈그림 2〉와 마찬가지로 '12. 기타상품·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12-1 보험료'는 '가계의 보험료 지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신 등 보장성보험, 실손 등 건강보험, 자동차 등 운송관련 보험, 노후 자금을 위한 연금보험 등을 포함함

7) 2011년 기준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30대 이하 0.68, 40대 0.42, 50대 0.68, 60대 이상 0.87로 나타나 40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상승할수록 상관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음

40·50대 중년에 자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함

- 1인 가구가 40·50대에 보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생존위험을 담보하는 연금상품에 적극적으로 가입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함[8)]

• 30대 이하 가구에서의 낮은 보험료 지출 비중은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보험의 활용성에 대해 늦게 인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

- 따라서 30대 이하 계층의 보험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보험종목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보험료 지출이 60대 이후 감소한다는 것은 연금상품의 가입기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보임. 특히, 이럴 경우 중년 40·50대 1인 가구의 연금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음